법회안내

서울 영천사 (02)313-5189

◇주지 법하스님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백일기도 97년 10월15일(음) 입재, 98년 1월15일(음) 회향
※철야기도 24일(난중무휴) 회비 2만원

광주 금광사 (062)375-3191

◇주지 거광스님

정기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임시법회(기초교리강좌)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 임시법회 매월 넷째주 토요일 저녁9시
※인등축원(1년등) 1월18일(양) 오전10시
※기도기간 1월18~20일(양) 저녁11시

호국 연호사 (0356)85-0686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일요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새해도 참나 찾아 출발

백양사 동계수행 결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쌓인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고 참선수행의 바다에 나를 던져보자.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참가자 전원에게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이 직접 화두를 주는 선 수행 결사를 마련한다. 이번 동계 결사는 '참나'를 찾아 떠나는 참사람 수행결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보자를 위한 결사.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의 화두법문 △토진스님(고불총림 기획실장)의 좌선의(坐禪儀)·선종사 강의 △일수스님(운문선원 선원장)의 좌선실수 △지선스님의 현대인의 수행법 강의 △금강스님(참사람 결사운동 사무처장)의 〈벽암록〉 강의 등이 준비된다. 수행결사 기간 중에는 묵언과 참선수행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눈 덮인 겨울산사에서 수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듯. (0685)92-7502

IMF 넘는 삶의 지혜

대원회 명사초청법회

IMF 경제한파 속에 명사들의 감로법문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시해 준다.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박은흔)는 18, 25일 대원회 법당에서 '명사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일 '법성게를 보는 시각'을 주제로 김지견교수(전통불교연구원 원장), 25일 '불교를 신행하는 기본자세'란 제목으로 이지행법사(한국불교대원회 상임법사)가 각각 법문하게 된다. (02)773-9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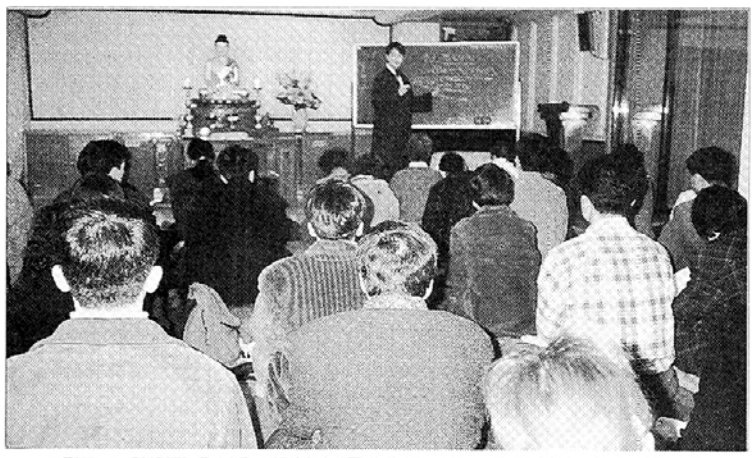
보시행은 업보를 녹인다

정토포교원 봉사자 교육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베풀면 온갖 과보가 사라진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는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보시행을 실천할 것을 설하였다. 이런 의미를 되새겨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봉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정토포교원 서초법당에서 갖게될 이번 교육은 △15일 '불교의식 및 의례 익히기'(유수스님) △22일 '소모임의 조직운영 방식'(유정길 환경교육원사무국장) △2월5일 '봉사활동 사례연구'(유수스님) △2월12일 '정토회 봉사자의 역할 및 태도'(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스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379-1650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불교기초교리 및 봉사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7일 홍제법당에서 개최됐던 보수 청년회상임법사의 '유마경' 강의모습.

일연스님 체취 느껴보자

'맑고향기' 인각사 생태기행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18일 경북 군위 인각사로 생태기행을 떠난다. 한때 수물 위기에 몰렸던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주지 대원).

이번 기행은 청정한 사찰을 찾아가 참배하고 댐이 세워져 물속에 잠길뻔 했던 인각사 주변의 생태조사는 물론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탈고한 역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02)741-4696

마애불 미소를 그리며

신라문화진흥원 백제권 답사

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은 17~18일 고목우 신라촌 연구위원의 안내로 예산 수덕사와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태안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등으로 충남권 백제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백제의 옛 영화(榮華)를 고이 간직한 유물과 유적, 자연속에 살아 숨쉬는 옛성과 고찰, 민중의 애환과 숨결이 고스란히 신앙으로 녹아든 미륵을 찾아 떠나는 길에서 넉넉한 백제의 미소를 만날 수 있을 듯하다. 참가비 8만원. (0561)771-1950

사물의 본질 바로보기

서울불청 '사구게' 법회

불교사상의 핵심을 게송으로 읊는 〈금강경〉 '사구게' 법회가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 주최로 만해교육원에서 매주 첫째 둘째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열린다.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의 지도로 참가자들은 사물의 본연상태를 4단계로 고찰하면서도 사물은 사구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02)730-9108

나의 수행일기

이 경 호

〈한전 전력경제처 선임연구원〉

'마음이 운명결정' 가슴에 새겨

한전반야회 창립…"법명 菩行 실천하며 살자"

나의 어머님은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 할머님과 함께 절에 가서 칠성불공을 드렸으나 세번째에도 역시 딸을 낳아 이름을 칠림(七林)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에 중단하지 않고 할머님과 어머님은 시골 암자에 가서 아들을 낳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 잉태를 하였는데 임신 6개월에 6·25사변이 일어났다. 임신 6개월이 된 육신을 이끌고 피난을 가는 도중 하늘에는 온통 사방으로 대포 파편이 교차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님은 동네 앞 빽빽하게 우거진 콩밭사이 골에 몸을 엎드렸다. 그러나 대포 파편은 어머님의 옆구리를 파고 들었다. 길이가 약 7~8㎝ 정도인 파편이 박혔다.

그 당시로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도저히 생존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히도 미국 의료지원단에 수송돼 약 1년동안 병간호를 잘 받아 건강하게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어느 마음상태, 그 마음이 믿고 있는 상태, 그 안에 품고 있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윤회하고 있으나 반야의 눈으로 보면 본래 없는 것이며, 반야에 의해서 소탕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바라밀엄송을 강조하셨다. '마하반야바라밀'에는 막히는 것이 없으며, 한계도 없고, 있다 없다하는 것조차도 없는 존재성이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광덕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아 불광법회에 가입하였다. 1개월후 마하보살이라는 임원을 맡아 남다른 불심으로 전법활동을 해오던 중 1980년 10월2일 광덕스님으로부터 보행(菩行)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보행이라는 법명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전법활동에 전념해 왔다.

또한 중구법회 명등보살임무를 부여받아 11년 2개월 동안 중구법회 불

누구도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모도, 태아였던 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들 기적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평소 우리 할머님과 어머님은 남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던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음식을 마련해서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셨다.

이러한 보살행의 인연공덕으로 나의 목숨을 이어 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다.

대구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명동입구에 있는 한국전력에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촌놈이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외로움이 따랐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도 남다른 불성이 있다고 관단했던지 한전 중부지점에 근무하는 정흔 보살이 특별히 찾아와서 1979년 12월 봉익동 대각사 불광법회를 안내해 주었다.

불광법회 광덕스님께서는 "사람의 자에게 가정탐방 기도와 순례법회를 주도하는 등 노보살들에게 전법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94년 10월 16일부터 2년간 불광법회 부회장직을 맡아 불교포교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1990년 3월 7일 불자모임인 반야회를 창립하여 직장법회로는 드물게 8년동안 중단없이 매주 목요일 저녁 5시30분(하계 6시30분)부터 단 한사람이 참석하더라도 법회는 어김없이 열리도록 했다. 간단(間斷)없는 전기처럼 법륜은 쉼없이 돌아갔다.

또 한전반야회에서는 매년 동계, 하계에 순례법회와 수련대회를 갖는다. 지난해는 6월에 영주부석사, 10월에 경주불국사에서 수련법회를 주관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한국전력에 근무하게 된 것은 할머니, 어머님이 쌓은 인연공덕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계속 법명인 '보행'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새해 아침에 발원해 본다.

게 시 판

♣ 인사

조계종 총무원 △최종환(복지재단 기획사업부장) △손상원(복지재단 복지계장) △이석심(총무계장) △박종학(서무계장대우) △이상봉(기획1계장 대우) △황찬익(홍보계장) △홍민석(문화1계장) △조계완(문화주임) △김승환(사회과장) △허권(사회3계장대우)

♣ 강좌

△구로복지관 역사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14, 15일 양일간 서울시내의·식·주 문화박물관에서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교실을 개최한다. 회비는 2만원. (02)852-0525

△노인의전화 상담원교육=한국노인의전화(회장 이성우)는 14, 16일 오후2시 이화여대 부근 노후 복지센터에서 제8회 노인을 위한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5만원. (02)365-2272

♣ 모집

△목동청소년회관 경전교실=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경전교실을 개설한다. 강사는 경륜스님. (02)646-0183

△법사교육 수강생=한국불교법사대학(총재 이종오)은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법사·대법사과정. 접수는 2월25일까지. (02)720-1836

△슈퍼비젼 교육생=자비의전화(회장 정덕스님)는 상담원으로 활동할 제7기 슈퍼비젼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명. 교육비는 무료. (02)737-7378

△능인선원 유급직원=능인선원(원장 지광)은 공양반에서 일할 불심이 돈독하고 신체건강한 40~50대 유급직원을 모집한다. (02)577-5800

△방송모니터 통신원=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방송모니터 통신원을 수시로 모집한다. 대상은 40세 미만의 전문대졸 이상. (02)712-5812

△사찰근무 여직원=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총본산 구인사 총무원과 각 말사에서 근무할 여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98년도 여고졸업자. (0444)423-7100

♣ 답사

△삼국유사 현장기행=터사랑(대표 전숙희)은 17~18일 무박2일로 '삼국유사 현장기행'을 떠난다. 이번 답사에는 '청도 운문사' '군위 인각사' '영천 거조암' 등을 둘러 보게 된다. 회비는 5만원. (02)725-1284

△경실련 문화역사기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설조스님·김윤환·유현석)은 17~18일까지 1박2일동안 '지리산 자락의 불교문화기행'을 주제로 답사를 간다. 이번 기행은 '만복사터' '백장암' '실상사' '마천 여래입상' 등 전북 남원 일대를 돌아 본다. 회비는 대상별로 4만원~7만원. (02)766-5390

♣ 이전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시 성북구 323번지 길상사내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41-4696

♣ 화촉

△선학원 편집실장 류봉수씨는 남귀순씨와 18일 오후3시30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화촉을 밝힌다.

♣ 부음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의 모친 김판순여사(90)가 6일 타계했다.

△김용전문위원(조계종종회사무처)의 부친 김춘학씨(75)가 2일 저녁7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한마음 전통메주

청농식품

천등산 한마음 메주의 특징

충북 충주시 산척면민이 재배한 순수 메주콩(백태)를 천등산 맑은 청정수로 씻고 삶아 황토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효시킨 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수장을 담그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리 메주입니다.

천등산 한마음 메주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울고 넘는 박달재를 소재한 천등산 자락의 광동부락에서 부락민이 직접 정성들여 씨뿌리고 재배하여 수확한 햇콩만을 사용합니다.
- 천등산 자락의 맥반석 단지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을 씻고 삶아 만듭니다.
- 신비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황토 온돌방에서 볏짚을 이용 순수하게 자연발효시켜 전통적인 맛과 향이 나는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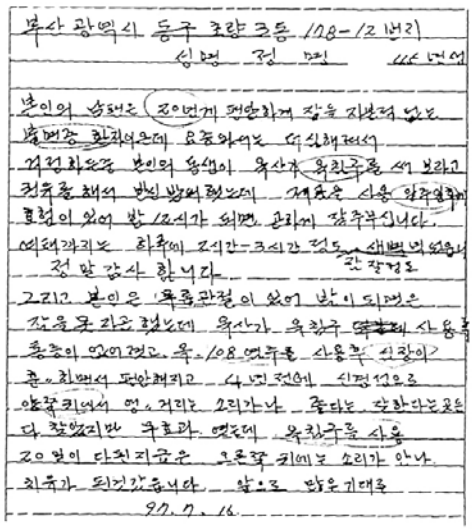
청농식품이란?

본 청농식품은 1996년 농림부가 전통식품 제조업체(메주)로 지정한 확실한 우리농민의 업체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부락민 5인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신토불이의 정신과 국민건강증진을 최대목표로 한겨울 내내 열심히 우리의 멋과 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5-1
● 전 화 : 0441)853-9982
● 핸드폰 : 011)467-9982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불면증

백옥 팔찌
팔반지
염주

옥이불
옥내의
옥벨트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法社團 韓國佛教大圓會

理事長 朴銑炘

상임이사 이지행
이사 이경호
이사 이권규
이사 김길성
이사 김용직
이사 김학민
이사 김황진
이사 배용옥
이사 배효구
이사 윤연식
이사 이강인
이사 이오호
이사 이상우
이사 이상준
이사 이순자

● 大圓法會 ●

상임법사 이지행
회장 김용직
부회장 배영옥
부회장 신성옥
부회장 심현옥
부회장 오덕랑
부회장 이호녕
부회장 이광배
부회장 허성구
부회장 전찬규
감사 임광배
감사 손정애
부회장 한채순

(이상 가나다순)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 10:30 ~ 12:30 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3-9171
FAX 756-7258